무주 '태권사상의 빛' 첫 선

발차기 모습 대형 태권도 상징조형물… 용포리 싸리재 터널 입구에 세워져

무주군 용포리 싸리재 터널 입구에 세워진 태권도 상징조형물 '태권사상의 빛'이 첫 선을 보였다.

무주군 용포리 싸리재 터널 입구(무주 진입도로 국도 19호선)에 세워진 태권도 상징조형물 '태권사상의 빛'이 첫 선을 보였다.

가로, 세로 각각 9.4m, 높이 7m로 조성된 조형물은 발차기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태권도를 통한 화합을 상징하는 유선형 링과 반딧불을 상징하는 오방색 띠로 구성이 돼 있다.

제막식에는 황정수 군수와 태권도진흥재단 김중헌 사무총장, 태권도지원육성추진위원회 김남호 위원장을 비롯한 태권도복입기운동본부와 무주태권도협회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 했다.

황정수 군수는 "태권도 상징물의 위용이 태권도성지에 들어섰다는 기대감을 키우고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곳에 모아진 우리의 열정은 명품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 성공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태권도 상징조형물 '태권사상의 빛'은 태권도성지로서 무주군의 위상을 높이고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를 상징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반디랜드에서 태권도원까지의 구간에도 품새조형물과 태극패턴을 넣은 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상징거리를 조성(2017.3.~6.)해 태권도 붐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만세로 나라사랑 · 무주사랑 꽃피워'

4.1 무주만세운동 기념행사 열려… 반딧불시장에서

무주군에서 지난 1일 4.1 만세운동 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 무주읍 반딧불시장 원형광장이 우렁찬 만세소리로 꽉 찼다.

황정수 무주군수와 무주군기독교연합회 최만규 회장(안성교회 목사)을 비롯한 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 한 4.1 만세운동 기념행사는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무주장날에 일어났던 4.1 무주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독립선언서 낭독'과 '나라와 민족, 무주군을 위한 기도', '3.1절 노래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황정수 무주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나라를 지키는데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외침이 뒷받침됐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오늘 우리의 외침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무주, 세계 태권도성지 무주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4.1 무주 만세운동은 3.1 운동 소식과 독립선언문이 무주지역에 전해지면서 무주장날(4.1.) 일어났으며, 이를 계기로 무주군에서는 총 7회에 걸쳐 3,500여 명이 참여한 만세운동이 있었다.

무주읍 지남공원 내에는 4.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전일봉 선생(1896~1950)의 동상이 자리하고 있으며, 전일봉 선생이 '삼숭학교' 간판을 걸고 학생들(무주, 진안, 장수지역)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던 여울교회(적상면 소재) 역시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도내 감사공무원 무주에서 연찬회

도, 시·군 감사공무원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2017년 연찬회가 무주태권도원에서 개최됐다.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시·군 종합감사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전컨설팅 및 자체감사 우수사례들을 공유했다.

또 전문가 초청 특강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체육활동을 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의회, 2016 결산검사 시작

완주군의회(의장 정성모)는 의장실에서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결산검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최등원 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소명영 위원, 장석한 위원, 임재평 위원, 홍순필 위원(공인회계사)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정성모 의장은 위촉식에서 "2017년도에는 공인회계사 1인을 포함시킨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살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4월 19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201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하게 된다. /완주=이중복 기자

진안군, 토양개량제 무상공급 완료

진안군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을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인 3월말 공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군 전역을 3권역으로 나눠 3년 1주기로 규산, 석회 등을 살포하여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은 157ppm으로 높이고, 밭 토양의 산도는 pH6.5 개량을 목표로 추진한다.

토양개량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무상 공급되며, 올해 공급 대상 지역은 진안, 용담, 안천, 상전, 백운 5개 읍·면으로 4억5,000만 원을 투입해 15만 1,496포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백운, 성수, 마령, 정천면 지역에 토양개량제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23개 중점과제 추진

유니세프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개최… 5개 분야별로

완주군이 올해 아동청소년권리 옹호제도 등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해 23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완주군은 유니세프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군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과제로 5개 분야, 23개 중점과제를 선정·추진키로 했다.

5개 분야로는 정책·교육·참여·소통·협력사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5개 분야별로 23개 중점과제가 선정됨으로써, 앞으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각 분야별 중점과제로는 우선 정책의 경우 아동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수립, 아동청소년지표 개발 및 아동영향평가, 아동청소년 권리옹호제도 등이고, 교육으로는 아동권리교육, 교육연구 및 제작 등이다.

참여 분야로는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대학생참여위원회 운영 등이며, 소통 분야에서는 온라인 소통망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밖에 협력 분야로는 아동청소년포럼 구성 및 운영, 민관공동사업 추진, 해외협약도시 프로젝트 추진 등이 선정됐다.

이날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황지욱 교수(전북대학교 도시계획과)가 학계 전문가, 현장전문가와 함께 아동친화적 도시공간을 위한 공론의 장과 중장기 도시계획 플랜 구상을, 이영미 대표(완주군 숟가락 공동육아)가 아동들의 안전한 보행공간 확충을 각각 제안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미래세대 육성은 군정 2대 핵심정책 중 하나"라며 "완주군이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지역사회 지지기반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장수군, 군정설명회 건의사항 추진상황보고회

올해 56건 처리… 6건 내년 추진

장수군은 주요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군정주민설명회 건의사항 처리 추진상황보고회'(이하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민선6기 3차년도를 맞아 지난 2월 7일부터 2월 10일(4일간)까지 실시된 '2017 군정주민설명회'에서, 각 주민대표와 사회단체회원 등이 제기한 민생현안 관련 주요 건의사항을 검토,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의 준비사항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한영희 장수부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군민이 원하는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한편, 장수군은 주민들이 건의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올해 56건 사업을 마무리하되, '주민복지회관 증축, (구)KBS중계소부지로의 군립도서관 이전 신축' 등 예산·시기 등의 이유로 올해 안에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6건의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 예산확보와 알뜰한 예산집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2018년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5종 농업 미생물 공급 확대 전체 군민으로

진안군은 올해 친환경 농업 확대와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5종의 농업 미생물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EM 등 5종의 미생물을 농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공급해오던 것을 올해에는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미생물을 확대 공급한다.

이를 위해 진안군은 지난해 EM 배양타인을 추가 증설하였으며, 올해에는 광합성균, 고초균 등 단일균 생산을 위하여 배양기도 추가 설치키로 했다.

특히 생활용 미생물을 군민 모두에게 확대 공급하여 주방용, 공중화장실,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속 악취제거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청정환경 보전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미생물은 매일 월~금요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며 사용방법은 미생물 수령 시 안내하고 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미생물은 농산물 품질향상과 축산 악취제거, 생활용 등 활용방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미생물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미생물 활용 교육도 수시로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마을 · 시민 텃밭 5곳 오늘 개장

완주군은 마을 및 시민 텃밭 5곳을 개장해 오늘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총 5개소(약 1만9000㎡)의 텃밭을 조성하고, 3월부터 지역 주민과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520세대에게 분양을 마쳤다.

군에서는 농사경험이 없는 참가자들을 위해 마을 경로당과 텃밭 등을 순회하며 텃밭 이용 설명 및 재배기술 안내하는 등 사전 설명회를 실시했다.

참여자들은 분양 받은 텃밭을 이용하여 한 해 동안 각종 채소들을 직접 가꾸며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농사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마을 텃밭 3개소는 삼례읍 새터마을, 봉동읍 낙정마을과 혁신도시 인근인 이서면 상개리에 마련됐으며, 도시민 텃밭 2곳은 용진읍 두억마을, 봉동읍 서두마을에 조성됐다.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은 "텃밭 재배는 도농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분양자들이 직접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을 식탁에 올려 가족의 사랑과 농업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